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도시 지역 고령자의 경로당 이용 욕구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the Needs for Using the Senior Citizen Hall

Targeting the Older Adults Who Do not Use the Hall

윤 현 태*

강 은 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Hyeontae Yoon

Eunmi Kang

Department of Silver Social Welfare, Dongbang Culture University

(초록)

경로당은 도시나 농어촌 등 지역사회 어디서나 노인들이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이다. 그러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근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또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465 명의 서울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들에게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경로당을 찾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경로당에서 운영해주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찾고 싶은 경로당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다.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선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은 여가나 운동이었다. 또 경로당을 찾지 않은 주된 이유는 대부분 경로당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예, 경로당을 취약한 노인이 다니는 장소로 인식)와 관련되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싶은 경로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경로당이 생산적 활동을 추구하는 장소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노년기 건강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고에서는 경로당이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예, 노인 포함 지역사회 거주자 대상 프로그램 제공, 점심시간 무렵 방문자에게 간단한 식사를 무료로

* (우) 028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8길 60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윤현태

(e-mail: yoonvely0624@naver.com)

** Correspondence to: (우) 028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8길 60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우교수

강은미 (Eunmi Kang) (e-mail: sonata0306@hanmail.net)

제공 등)을 논하였다.

주제어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활기찬 노후, 경로당 활성화

(Abstract)

The senior citizen hall (SCH) is a leisure welfare facility for the older adults that can be easily accessed and/or used anywhere in the community, including urban and rural areas. However, the proportion of the older adults using the SCH has recently been decreasing for a variety of reasons. In order to find some ways to revitalize the SCH,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465 community-dwelling Seoulites who were economically inactive and did not use the SCH. They were asked what the most time-consuming daily routine was, why they did not visit SCH, whether there are programs that they would like the SCH to run, and what were the requisites for SCH that they would like to visi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ponses, first of all,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considered the daily activity which they spent most of time as leisure or exercise. In addition, the primary reasons for not visiting the SCH were mostly related to the negative images of the SCH (e.g., perceiving the SCH as a place for the vulnerable older adults). Based on the findings, some ways (e.g., providing programs for community-dwellers including the older adults, offering a complimentary light meal for visitors around lunchtime, etc.) to develop the SCH into a space that integrates the local community were discussed in this paper.

Key words : Welfare facilities for the older adults, Senior citizen hall, Active aging, Vitalizing the senior citizen hall

I. 서론

경로당은 우리 전통의 사랑방 문화에서 노인정(老人亭)의 형태로 자생적 발전 과정을 거치며,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 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편입되어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서의 법적 시설로 명문화되었다(Jin & You, 2021). 도시나 농어촌을 막론하고 지역마다 소재한 경로당은 이용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예, 아파트단지 내)에 있어서 고령자가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67,2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의 97.7%에 해당한다. 서울시 소재 경로당은 3,48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구의 행정동 기준 평균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Seoul Metropolitan City, 2021; KOSIS, 2021).

경로당은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 여가나 중식 서비스, 시설 관리 등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공적인 여가복지시설이다. 또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시설 개방이나 회원, 회계 등의 제반 관리를 비롯하여 중식 제공 지원, 민원 중재,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K. Lee & Lee, 2011). 경로당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252만 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1개소당 약 37.7명에 해당한다. 또 이용자는 거의 3/4 이상이 75세 이상의 고령이며, 일주일에 3.9일 정도 이용한다. 그러나 이용자 수에 비해 시설의 면적은 넓지 않은데, 전체의 71%가 102.46㎡를 넘지 못한 상태이다(Chung, Ahn, Chung, Lee, & Kim, 2020; MOHW, 2020). 서울시에 소재한 3,472개소 경로당은 2020년 기준으로 개소당 약 3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시설면적은 52.5%가 99㎡ 이하로 협소한 편이다. 또 경로당 이용 노인 중 약 49.6%는 거의 매일 방문하였으며, 경로당까지의 거리는 대부분 도보로 11분 정도였다(J. Kim & Yang, 2021; S. Lee & Heo, 2020).

한편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2008년도의 46.9%에서 2011년 34.2%, 2014년 25.9%, 2017년 23.0%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28.1%로 약간 상승했으나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 이유도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고령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협소한 장소, 프로그램 부족,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운영 책임 노인의 전문성 결여, 재정지원 저조 등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Cho, 2018; C. Kim, Yi, & Lee, 2016; J. Kim & Yang, 2021; K. Lee & Lee, 2011). 그러나 식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경로당 방문의 경우 2011년

3.7%에서 2017년 57.2%, 2020년 62.5%로 증가하였으며, 건강증진 및 취미나 여가 프로그램 이용도 상승세를 보였다(MOHW, 2020).

정부에서도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예산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5,288억 원으로 이는 개별 경로당에 연 790만 원 정도를 지원한 셈이다(Chung et al., 2020). 서울시에서도 경로당마다 공공요금, 주·부식비, 수용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월 평균 30만 원 정도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을 지원하고 있다(Seoul Metropolitan City, 2021). 그러나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인건비 이외의 운영비나 시설비에 해당하며, 경로당 운영비 일부는 이용자들이 월 회비 명목으로 각출한 것에 해당한다(You, Park, & Shin, 2021).

경로당은 이같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용 노인들이 눈높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적 시설이지만,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운영비 부족, 좁고 낙후된 시설 등으로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역할이 미비한 실정이다(Ko & Lee, 2016). 평균수명 증가로 연장된 노년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그리고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증가 등은 노년기 여가 활동 및 사회참여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지역사회 내 경로당의 활성화 방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근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비롯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유입을 통해 활기찬 시

설로의 변형과 다양화되는 여가복지의 특화모델이 긴요한 시점이다(J. Kim & Lee,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로당이 동네마다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경로당 이용자 범주의 외연을 넓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곧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평소 즐겨 하는 활동, 경로당에 가지 않는 이유,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방문하고 싶은 경로당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후 성별·나이·학력에 따라서 분석한 연구였는데, 그 결과는 경로당 기능 활성화의 기초자료 제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II. 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노인 465명(남성 171명, 여성 294)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나이는 평균 71.01세($SD=7.72$, $Range=65-90$)였으며, 남자($M=74.53$, $SD=6.97$)가 여자($M=68.97$ 세, $SD=7.41$)보다 나이가 더 높은 편이었다($F=64.48$, $p<.001$). 그리고 그들의 나이는 분석과정에서 편의상 상중하 세 집단으로 구분했는데, 상은 75세 이상으로 34.0%($n=158$), 중은 70-74세로 20.9%($n=97$), 그리고 하는 69세 이하로 45.15%($n=210$)이었다.

그들의 학력은 대졸 이상 29.2%($n=136$),

고졸 35.3%($n=164$), 그리고 중졸 이하 35.5%($n=165$)이었다. 성별로 구분할 시 남자는 대졸 이상 29.8%($n=51$), 고졸 31.0%($n=53$), 그리고 중졸 이하 39.2%($n=67$)이었던 반면, 여자는 대졸 이상 28.9%($n=85$), 고졸 37.8%($n=111$), 그리고 중졸 이하 33.3%($n=98$)이었다. 한편 나이에 따른 학력을 살펴볼 때 75세 이상 및 70-74세 집단의 경우 중졸 이하의 비율이 각각 57.0%($n=90$) 및 46.4%($n=45$)로 가장 많았던 반면, 69세 이하에서는 대졸 이상이 46.2% ($n=97$ 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와 동거하는지의 질문에서는 배우자하고만 산다는 비율이 53.9%($n=251$) 그리고 혼자 산다는 비율이 15.5%($n=72$)로 조사대상자 거의 2/3 이상이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 달 사용하는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20만 원 미만 13.3%($n=62$), 20~40만 원 26.2%($n=122$), 40~60만 원 26.5%($n=123$), 60-80만 원 7.3%($n=34$), 그리고 80만 원 이상 26.7%($n=124$)이었다. 퇴직 이전에 종사한 직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전업주부였다는 응답이 36.6%($n=170$)이었고, 이어서 전문직 16.1%($n=75$), 상업 12.7%($n=59$), 회사원 9.9%($n=46$), 단순노동 6.2%($n=29$), 공무원 6.0%($n=28$), 농축어업 0.6%($n=3$)의 순이었으며, 그리고 기타 11.8%($n=55$)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비율이 13.5%($n=63$)이었으며, 주관적 생활 수준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나쁜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15.1%($n=70$)이었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도구는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이었다. 설문지에는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성별, 나이, 학력, 지역, 동거인, 용돈, 과거 직업,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수준) 9개 문항, 경로당에 대한 인식의 3개 문항, 그리고 경로당 필요조건의 11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 중 학력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등을 예시하여 선택하도록 했다. 거주 지역은 서울시 거주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구에 거주하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누구와 동거하는지는 혼자, 배우자와 함께, 기혼 자녀와 함께, 미혼 자녀와 함께, 기타 등을 예시하여 선택하도록 했다. 한 달 동안 일상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단위: 만원)는 개방형으로 질문했으며, 퇴직 이전에 종사한 직업은 단순노동, 상업, 전업주부, 전문직, 농·축·어업, 회사원, 공무원, 기타를 예시하여 선택하도록 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Likert식 5점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다(=1)’부터 ‘매우 필요하다(=5)’까지]로 측정했으며, 주관적 생활 수준은 Likert식 5점 척도[‘매우 낮다(=1)’부터 ‘매우 높다(=5)’까지]로 측정했다. 한편 경로당에 대한 인식 및 경로당 필요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에 대한 인식

경로당에 대한 인식은 ① 일과 중 가장 오랜 시간 소요하는 활동, ② 경로당에 가

지 않는 이유, 그리고 ③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묻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질문 ①은 응답자가 경로당을 방문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일 때문에 바쁜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본 연구자가 보건복지부의 노인보 건복지 사업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문항 및 답지를 만들었다(MOH, 2021). 구체적으로 ‘귀하는 일과 중에서 무엇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라고 질문했으며, 이웃이나 친구 만나기, 집안일 또는 손자나 손녀 돌보기, 취미활동이나 운동, 돈 벌기 위해 일하기, 자원봉사(사회공헌) 활동, 종교 활동, 특별히 하는 일 없음, 기타 등 모두 8개 답지를 예시하였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기라고 응답한 자는 자료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질문 ②는 경로당 운영이나 이용 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 및 답지를 만들었다(T. Lee, Kim, Song, Lim, & Nam, 2019). 구체적으로 ‘귀하가 현재 경로당에 가지 않거나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가는 장소라서,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일자리)이 아니라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라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텃세 등과 같은 폐쇄성이 강해서, 시설이 너무 작고 낙후되어 있어서,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기타 등 9개의 예시를 제시한 후 가장 주요한 이유를 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질문 ③은 ①에서 언급했던 사업안내 자료

(MOHW, 2021)를 참고한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활동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라는 것이었는데, 답지에는 탁구를 비롯하여 당구, 건강 걷기, 건강 체조, 종이접기·꽃꽂이 등 만들기, 노래 교실, 요리 교실, 서예 교실, 그림그리기, 배드민턴, 그라운드골프, 사교댄스, 헬스, 골프, 게이트볼, 웃음 교실, 장기, 바둑, 독서, 인문학/문화 관련 교양강좌, 민요 교실, 나들이·관광, 정보화 교육, 기타 등 24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에게 최우선 순위부터 3순위까지 택하도록 했으며, 분석 시에는 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했다.

2) 가고 싶은 경로당 필요 조건

‘귀하가 가고 싶은 경로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11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 항목들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문헌을 참조하여 만들었다(K. Lee & Lee, 2011; MOHW, 2021). 이들은 구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인식 제고, 경로당의 개방성, 경로당 규모 확대 및 시설·설비 현대화, 경로당의 생산적 활동 장소로의 변화,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 건강증진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책임자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 경로당 회원 연소화, 경로당 명칭 변경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응답 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다(=1)’부터 ‘매우 필요하다(=5)’까지]였으며, 11개 항목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861($N=465$)이었다.

3. 조사절차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재 최소 30곳 이상의 근린공원과 재래시장을 직접 찾아가 그곳에서 운동이나 산책 중이던 또는 시장 어귀를 지나던 사람 중 60대 중반 이상으로 보이는 분에게 접근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그분에게 나이가 65세 이상인지를 확인한 다음 경로당에 다닌 적이 있는지를 여쭙었다. 경로당에 다닌 적이 없다고 응답한 65세 이상인 분에게는 경로당 활성화 관련 짧은 설문조사에 응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동의한 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설치한 간이탁자가 있는 장소로 안내하여 마주 앉은 후 연구자는 그분에게 설문지 내용 및 응답 요령을 설명하고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대다수는 본인이 직접 설문지를 읽고 답했지만,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연구자에게 설문지를 읽어주기를 원하는 분의 경우에는 구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내용 설명 및 설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15~20분 정도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끝났을 때 감사의 의미로 소매 가격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팩을 제공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설문지를 작성하다가 중단하고 자리를 뜨시는 분은 없었다. 설문지 응답은 익명으로 했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설문지 자료는 2021년 8월 10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모두 535명으로부터 얻었다. 그러나 자료 분석은 이들 중 다수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무성의하

게 답변한 27명 그리고 ‘일과 중에서 무엇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라는 문항에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응답한 43명을 제외한 465명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

III. 결과

1. 일과 중 장시간 하는 활동

경로당을 방문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일 때문에 바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과 중 무엇을 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취미활동이나 운동이 60.6%($n=2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이웃이나 친구를 만난다는 반응 12.0%($n=56$)를 비롯하여 집안일 또는 손자나 손녀 돌보기 9.2%($n=43$),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음 8.2%($n=38$), 자원봉사 활동 5.2%($n=24$), 그리고 종교 활동 3.2%($n=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을 성별, 나이, 그리고 학력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취미활동이나 운동이 각각 64.9%($n=111$), 58.2%($n=171$)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남성은 특별히 하는 일 없다는 반응 12.3%($n=21$)를 비롯하여 이웃이나 친구 만나기 11.1%($n=19$), 집안일 또는 손자나 손녀 돌보기 4.7%($n=8$),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4.1%($n=7$)로 나타났다. 여성은 이웃이나 친구를 만난다는 반응 12.6%($n=37$)를 비롯하여 집안일 또는 손자나 손녀 돌보기 11.9%($n=35$),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과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음이 각각 5.8%($n=17$)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른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즐긴다는 반응이 75세 이상, 70~74세, 그리고 69세 이하에서 각각 58.2%($n=92$), 63.9%($n=62$), 그리고 61.0%($n=12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75세 이상에서는 특별히 하는 일 없다는 반응 16.5%($n=26$)를 비롯하여 이웃이나 친구 만나기 12.7%($n=20$), 집안일 또는 손자나 손녀 돌보기 7.6%($n=12$), 그리고 종교 활동 2.5%($n=4$)로 나타났으며, 70~74세에서는 이웃이나 친구를 만난다는 반응 14.4%($n=14$)를 비롯하여 집안일 또는 손자나 손녀 돌보기 8.2%($n=8$), 특별히 하는 일 없음 6.2%($n=6$), 그리고 종교 활동 5.2%($n=5$)로 나타났다. 그리고 69세 이하에서는 집안일 또는 손자나 손녀를 돌본다는 반응 11.0%($n=23$)를 비롯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이웃이나 친구 만나기가 각각 10.5%($n=22$), 그리고 종교 활동과 특별히 하는 일 없음이 각각 2.9%($n=6$)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취미 활동이나 운동이 중졸 이하, 고졸, 그리고 대졸 이상의 모든 학력에서 각각 53.3%($n=88$), 67.1%($n=110$), 그리고 61.8%($n=8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중졸 이하에서는 이웃이나 친구를 만난다는 반응 15.2%($n=25$)를 비롯하여 특별히 하는 일 없음 14.5%($n=24$),

〈Table 1〉 The most time-consuming daily routine [% (n)]

	Gender		Age			Years of schooling			Total
	Men	Women	65 to 69 years	70 to 74 years	75 to 90 years	≤ 9	10-12	≥ 13	
Meeting acquaintances (neighbors or friends)	11.1 (19)	12.6 (37)	10.5 (22)	14.4 (14)	12.7 (20)	15.2 (25)	9.8 (16)	11.0 (15)	12.0 (56)
Household chores and/or taking care of grandchildren	4.7 (8)	11.9 (35)	11.0 (23)	8.2 (8)	7.6 (12)	10.9 (18)	8.5 (14)	8.1 (11)	9.2 (43)
Enjoying leisure or physical activities	64.9 (111)	58.2 (171)	61.0 (128)	63.9 (62)	58.2 (92)	53.3 (88)	67.1 (110)	61.8 (84)	60.6 (282)
Volunteer work	4.1 (7)	5.8 (17)	10.5 (22)	1.0 (1)	0.6 (1)	0.6 (1)	3.7 (6)	12.5 (17)	5.2 (24)
Religious activities	1.8 (3)	4.1 (12)	2.9 (6)	5.2 (5)	2.5 (4)	4.8 (8)	3.7 (6)	0.7 (1)	3.2 (15)
Have nothing particular to do	12.3 (21)	5.8 (17)	2.9 (6)	6.2 (6)	16.5 (26)	14.5 (24)	4.9 (6)	4.4 (6)	8.2 (38)
Doing other things	1.2 (2)	1.7 (5)	1.4 (3)	1.0 (1)	1.9 (3)	0.6 (1)	2.4 (4)	1.5 (2)	1.5 (7)
Total	100.0 (171)	100.0 (294)	100.0 (210)	100.0 (97)	100.0 (158)	100.0 (165)	100.0 (164)	100.0 (136)	100.0 (465)

집안일 또는 손자나 손녀 돌보기 10.9% ($n=18$), 그리고 종교 활동 4.8%($n=8$)로 나타났다. 고졸에서는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는 반응 9.8%($n=16$)를 비롯하여 집안일 또는 손자나 손녀 돌보기 8.5%($n=14$), 특별히 하는 일 없음이 4.9%($n=8$),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과 종교 활동이 각각 3.7%($n=6$)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반응 12.5%($n=17$)를 비롯하여 이웃이나 친구 만나기 11.0%($n=15$), 집안일 또는 손자나 손녀 돌보기 8.1%($n=11$), 그리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음 4.4%($n=6$)로 나타났다.

2. 경로당에 가지 않는 이유

경로당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는 반응이 25.1%($n=1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가는 장소라는 반응이 22.4%($n=104$),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가 14.0%($n=65$), 텃세 등과 같은 폐쇄성이 강하다는 반응이 11.6%($n=54$),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일자리)이 아니라는 이유가 8.4%($n=39$),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곳과

〈Table 2〉 Reasons for not going to senior citizen hall [% (n)]

Reason	Gender		Age			Years of schooling			Total
	Men	Women	65 to 69 years	70 to 74 years	75 to 90 years	≤ 9	10-12	≥ 13	
It's a place where old people with poor health go.	26.3 (45)	20.1 (59)	21.4 (45)	26.8 (26)	20.9 (33)	23.6 (39)	22.0 (36)	21.3 (29)	22.4 (104)
It's a place where old people with low SES go.	24.6 (42)	25.5 (75)	18.1 (38)	27.8 (27)	32.9 (52)	35.2 (58)	23.8 (39)	14.7 (20)	25.1 (117)
It's not a place to do anything productive.	8.2 (14)	8.5 (25)	10.0 (21)	6.2 (6)	7.6 (12)	4.8 (8)	9.8 (16)	11.0 (15)	8.4 (39)
It's not a place to properly volunteer in the community.	2.3 (4)	5.8 (17)	5.2 (11)	5.2 (5)	3.2 (5)	3.6 (6)	4.9 (8)	5.1 (7)	4.5 (21)
It's not a facility shared with community members.	4.7 (8)	4.4 (13)	5.7 (12)	3.1 (3)	3.8 (6)	3.6 (6)	3.7 (6)	6.6 (9)	4.5 (21)
It's not open to outsiders at all.	11.7 (20)	11.6 (34)	11.9 (25)	10.3 (10)	12.0 (19)	11.5 (19)	12.2 (20)	11.0 (15)	11.6 (54)
It's too small and run-down.	4.1 (7)	4.4 (13)	6.2 (13)	3.1 (3)	2.5 (4)	1.2 (2)	2.4 (4)	10.3 (14)	4.3 (20)
There is no program I want.	12.9 (22)	14.6 (43)	16.2 (34)	12.4 (12)	12.0 (19)	12.1 (20)	14.6 (24)	15.4 (21)	14.0 (65)
Other reasons.	5.3 (9)	5.1 (15)	5.2 (11)	5.2 (5)	5.1 (8)	4.2 (7)	6.7 (11)	4.4 (6)	5.2 (24)
Total	100.0 (171)	100.0 (294)	100.0 (210)	100.0 (97)	100.0 (158)	100.0 (165)	100.0 (164)	100.0 (136)	100.0 (465)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가 각각 4.5%(n=21), 시설이 너무 작고 낙후되어 있어서라는 반응이 4.3%(n=20), 그리고 기타가 5.2%(n=24)로 나타났다. 그 비율을 성별, 나이, 그리고 학력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가는 장소라는 반응이 26.3%(n=4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반응이 24.6%(n=42),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가 12.9%(n=22), 텃세 등과 같은 폐쇄성이 강하다는 반응이 11.7%(n=20),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일자리)이 아니라는 이유가 8.2%(n=14), 그리고 기타가 5.3%(n=9)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은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반응이 25.5%(n=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가는 장소라는 반응이 20.1%(n=59),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반응이 14.6%($n=43$), 텃세 등과 같은 폐쇄성이 강하다는 반응이 11.6%($n=34$), 생산적인 일(일자리)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가 8.5%($n=25$), 그리고 시설이 너무 작고 낙후되어 있다는 이유가 5.8%($n=17$)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른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75세 이상에서는 교육이나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반응이 32.9%($n=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다니는 장소라는 반응이 20.9%($n=33$), 텃세 등과 같은 폐쇄성이 강해서 및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각각 12.0%($n=19$),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일자리)이 아니어서라는 반응이 7.6%($n=12$), 그리고 기타 5.1%($n=8$)로 나타났다. 그리고 70~74세 이상에서는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반응이 27.8%($n=2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다니는 장소라는 반응이 26.8%($n=26$),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10.3%($n=10$),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일자리)이 아니라는 이유가 6.2%($n=6$),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곳과 기타에 대한 반응이 각각 5.2%($n=5$)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하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다니는 장소라는 반응이 21.4%($n=4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교육이나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노인들이 다니는 장소라는 반응이 18.1%($n=38$),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가 16.2%($n=34$), 텃세 등과 같은 폐쇄성이 강해서라

는 반응이 11.9%($n=25$), 생산적인 일을 하는 않는 곳(일자리)이라는 이유가 10.0%($n=21$), 그리고 시설이 너무 작거나 낙후되어 있다는 반응이 6.2%($n=13$)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에서는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반응이 35.2%($n=5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가는 장소라는 반응이 23.6%($n=39$),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반응이 12.1%($n=20$), 텃세 등과 같은 폐쇄성이 강하다는 이유가 11.5%($n=19$),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곳(일자리)이라는 이유가 4.8%($n=8$), 그리고 기타가 4.2%($n=7$)로 나타났다. 또 고졸에서는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반응이 23.8%($n=3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가는 장소라는 반응이 22.0%($n=36$),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가 14.6%($n=24$), 텃세 등과 같은 폐쇄성이 강하다는 이유가 12.2%($n=20$),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장소(일자리)라는 반응이 9.8%($n=16$), 그리고 기타가 6.7%($n=11$)로 나타났다. 또 대졸 이상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다니는 장소라는 반응이 21.3%($n=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반응이 15.4%($n=21$),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반응이 14.7%($n=20$),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일자리)이 아니라는 및 텃세 등과 같은 폐쇄성이 강해서라는 반응이 각각 11.0%($n=15$), 그리고 시설이 너무 작고 낙후

되어 있다는 반응이 6.6%($n=9$)로 나타났다.

3. 선호하는 프로그램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시 조사 대상자의 답변에서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그리고 3순위는 1점을 부여한 후에 이를 합산했다. 그 합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건강 걷기를 선호하는 반응이 28.0%($n=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건강 체조 13.7%($n=383$)를 비롯하여 노래 교실 8.5%($n=236$), 정보화 교육 5.7%($n=158$), 탁구 4.6%($n=128$), 그리고 나들이 · 관광 4.3%($n=120$)로 선호하는 반응 비율이 나타났다. 그 비율을 성별, 나이, 그리고 학력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에서는 건강 걷기에 대한 반응이 28.4%($n=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건강 체조 8.1%($n=83$), 정보화 교육 6.3%($n=65$), 바둑과 장기가 각각 6.0%($n=62$), 그리고 탁구 5.6%($n=57$)로 선호하는 반응 비율이 나타났다. 한편 여성에서는 건강 걷기를 선호하는 반응이 27.8%($n=49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 체조 17.0%($n=300$), 노래 교실 11.1%($n=195$), 정보화 교육 5.3%($n=93$), 헬스 4.2%($n=74$), 그리고 테니스 및 웃음 교실 및 나들이 · 관광이 각각 4.2%($n=74$)로 나타났다.

또 나이에 따른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75세 이상에서 건강 걷기를 선호하는 반응이 28.8%($n=27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 체조 11.5%($n=109$), 노래 교실 9.0%($n=85$), 정보화 교육 6.4%($n=61$), 그리고 장기 및 나들이 · 관광이 각각 4.6%($n=44$)로 나타났다. 또 70-74에서는 건강 걷기를 선호하는 반응이 29.2%($n=17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 체조 11.3%($n=66$), 노래 교실 8.2%($n=48$), 탁구 6.7%($n=39$), 정보화 교육 5.8%($n=34$), 그리고 헬스 4.6%($n=27$)로 나타났다. 또 69세 이하에서는 건강 걷기를 선호하는 반응이 26.8%($n=33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 체조 16.5%($n=208$), 노래 교실 8.2%($n=103$), 헬스 5.4%($n=68$), 정보화 교육 5.0%($n=63$), 그리고 탁구 4.3%($n=54$)로 나타났다.

더불어 학력에 따른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에서는 건강 걷기를 선호하는 반응이 29.6%($n=29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 체조 14.4%($n=143$), 노래 교실 10.4%($n=103$), 정보화 교육 7.1%($n=70$), 나들이 · 관광 5.1%($n=50$), 그리고 탁구 4.3%($n=43$)로 나타났다. 또 고졸에서는 건강 걷기를 선호하는 반응이 26.3%($n=25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 체조 12.9%($n=127$), 노래 교실 9.7%($n=95$), 탁구 5.5%($n=54$), 정보화 교육 5.2%($n=51$), 그리고 교양강좌 4.0%($n=39$)로 나타났다. 또 대졸 이상에서는 건강 걷기를 선호하는 반응이 28.1%($n=2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 체조 13.8%($n=113$), 헬스 6.1%($n=50$), 교양강좌 5.1%($n=42$), 골프 5.0%($n=41$), 그리고 독서 4.9%($n=40$)로 나타났다.

〈Table 3〉 Most preferred programs [% (n)]

	Gender		Age			Years of schooling			Total
	Men	Women	65 to 69 years	70 to 74 years	75 to 90 years	≤ 9	10-12	≥ 13	
Table tennis	5.6 (57)	4.0 (71)	4.3 (54)	6.7 (39)	3.7 (35)	4.3 (43)	5.5 (54)	3.8 (31)	4.6 (128)
Billiards	5.2 (53)	0.9 (15)	2.8 (35)	0.7 (4)	3.1 (29)	1.9 (19)	2.0 (20)	3.6 (29)	2.4 (68)
Walking	28.4 (291)	27.8 (490)	26.8 (338)	29.2 (170)	28.8 (273)	29.6 (293)	26.3 (259)	28.1 (229)	28.0 (781)
Gymnastics	8.1 (83)	17.0 (300)	16.5 (208)	11.3 (66)	11.5 (109)	14.4 (143)	12.9 (127)	13.8 (113)	13.7 (383)
Crafts	0.6 (6)	2.3 (40)	2.4 (30)	0.2 (1)	1.6 (15)	1.3 (13)	1.8 (18)	1.8 (15)	1.6 (46)
Singing	4.0 (41)	11.1 (195)	8.2 (103)	8.2 (48)	9.0 (85)	10.4 (103)	9.7 (95)	4.7 (38)	8.5 (236)
Cooking	1.2 (12)	3.5 (62)	3.2 (40)	3.1 (18)	1.7 (16)	2.0 (20)	3.5 (34)	2.5 (20)	2.7 (74)
Calligraphy	1.8 (18)	0.5 (9)	0.6 (8)	0.2 (1)	1.9 (18)	1.1 (11)	0.6 (6)	1.2 (10)	1.0 (27)
Drawing	0.7 (7)	2.0 (32)	1.8 (23)	0.7 (4)	1.7 (16)	1.4 (14)	1.9 (19)	1.2 (10)	1.5 (43)
Badminton	2.6 (27)	1.2 (21)	1.1 (14)	2.7 (16)	1.9 (18)	2.7 (27)	1.2 (12)	1.1 (9)	1.7 (48)
Park golf	0.3 (3)	0.6 (11)	0.6 (7)	0.7 (4)	0.3 (3)	0.2 (2)	0.5 (5)	0.9 (7)	0.5 (14)
Social dancing	2.3 (24)	2.3 (41)	2.0 (25)	2.9 (17)	2.4 (23)	1.9 (19)	2.9 (29)	2.1 (17)	2.3 (65)
Fitness	2.9 (30)	4.2 (74)	5.4 (68)	4.6 (27)	0.9 (9)	1.8 (18)	3.7 (36)	6.1 (50)	3.7 (104)
Golf	2.4 (25)	1.8 (32)	2.6 (33)	2.6 (15)	0.9 (9)	0.6 (6)	1.0 (10)	5.0 (41)	2.0 (57)
Gate ball	0.8 (8)	0.8 (14)	0.7 (9)	0.9 (5)	0.8 (8)	0.7 (7)	1.3 (13)	0.2 (2)	0.8 (22)
Laughing class	1.2 (12)	4.0 (71)	2.9 (36)	3.6 (21)	2.7 (26)	3.8 (38)	2.7 (27)	2.2 (18)	3.0 (83)
Korean chess	6.0 (62)	0.1 (2)	0.3 (4)	2.7 (16)	4.6 (44)	3.1 (31)	2.9 (29)	0.5 (4)	2.3 (64)

〈Table 3〉 Most preferred programs [% (n)]

(계속)

	Gender		Age			Years of schooling			Total
	Men	Women	65 to 69 years	70 to 74 years	75 to 90 years	≤ 9	10-12	≥ 13	
Go game	6.0 (62)	0.2 (3)	0.9 (11)	2.2 (13)	4.3 (41)	2.9 (29)	2.2 (22)	1.7 (14)	2.3 (65)
Reading	4.3 (44)	2.0 (36)	3.1 (39)	2.9 (17)	2.5 (24)	1.2 (12)	2.8 (28)	4.9 (40)	2.9 (80)
Humanities class	3.6 (37)	3.2 (56)	4.0 (50)	2.9 (17)	2.7 (26)	1.2 (12)	4.0 (39)	5.1 (42)	3.3 (93)
Folk song	0.5 (5)	0.9 (16)	0.5 (6)	0.2 (1)	1.5 (14)	0.8 (8)	0.9 (9)	0.5 (4)	0.8 (21)
Guided tour	4.9 (50)	4.0 (70)	4.1 (52)	4.1 (24)	4.6 (44)	5.1 (50)	3.9 (38)	3.9 (32)	4.3 (120)
Information & technology	6.3 (65)	5.3 (93)	5.0 (63)	5.8 (34)	6.4 (61)	7.1 (70)	5.2 (51)	4.5 (37)	5.7 (158)
Others	0.2 (2)	0.3 (6)	0.3 (4)	0.7 (4)	0 (0.0)	0.2 (2)	0.2 (2)	0.5 (4)	0.3 (8)
Total	100.0 (1026)	100.0 (1764)	100.0 (1260)	100.0 (582)	100.0 (948)	100.0 (990)	100.0 (984)	100.0 (815)	100.0 (2790)

Note. The numbers in parentheses are weighted (1st choice a weight of 3, 2nd choice 2, and 3rd choice 1), and thus the total number was 2,790.

4. 가고 싶은 경로당의 필요 조건

가고 싶은 경로당의 필요 조건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방문하고 싶은 경로당의 필요성에 대한 11개 항목에 대한 평균의 순위를 살펴보면, 건강증진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M=4.29$, $SD=.87$),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M=4.17$, $SD=.90$), 운영책임자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M=4.13$, $SD=.87$),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M=4.06$, $SD=.93$),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M=4.13$, $SD=.95$), 경로당의 생산적 활동

장소로의 변화($M=3.98$, $SD=.99$), 경로당의 개방성($M=3.97$, $SD=.95$), 경로당 규모 확대 및 시설·설비 현대화($M=3.90$, $SD=1.03$), 경로당에 대한 인식 제고($M=3.84$, $SD=1.00$), 경로당 회원 연소화($M=3.45$, $SD=1.17$), 그리고 경로당 명칭 변경($M=3.18$, $SD=1.31$)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별, 나이, 그리고 학력에 따른 문항별 평균의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성은 건강증진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M=4.20$, $SD=.95$),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M=4.04$, $SD=.96$), 운영책임자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M=4.02$,

〈Table 4〉 Requisites for preferred senior citizen hall

		Gender		Age			Years of schooling			Total
		Men	Women	65 to 69 years	70 to 74 years	75 to 90 years	≤ 9	10-12	≥ 13	
Improving the negative image of the senior citizen center	<i>M</i>	3.64	3.96	4.05 ^b	3.84 ^b	3.56 ^a	3.66 ^a	3.87 ^{ab}	4.01 ^b	3.84
	<i>SD</i>	1.09	.93	.84	.98	1.14	1.06	1.00	.90	1.00
	<i>F</i>	11.17**		11.01***			4.88**			
Eliminating the closed atmosphere of the center	<i>M</i>	3.74	4.10	4.08	3.91	3.87	3.88	3.99	4.05	3.97
	<i>SD</i>	1.01	.89	.87	.88	1.08	1.02	.97	.82	.95
	<i>F</i>	16.00***		2.47			1.19			
Being a place for productive activities	<i>M</i>	3.91	4.03	4.11 ^b	3.98 ^{ab}	3.82 ^a	3.87	3.98	4.13	3.98
	<i>SD</i>	1.04	.96	.90	.97	1.10	1.05	1.01	.88	.99
	<i>F</i>	1.70		3.82*			2.70			
Expanding and/or upgrading the facilities of the center	<i>M</i>	3.79	3.97	3.96	3.90	3.83	3.87	3.89	3.96	3.90
	<i>SD</i>	1.04	1.03	.97	.99	1.14	1.07	1.06	.97	1.03
	<i>F</i>	3.30		< 1			< 1			
Expanding programs involving community-dwellers	<i>M</i>	3.95	4.13	4.21 ^b	3.97 ^a	3.92 ^a	3.94	4.12	4.14	4.06
	<i>SD</i>	.95	.91	.82	.98	1.01	.97	.91	.90	.93
	<i>F</i>	4.14*		4.92**			2.25			
Providing a variety of welfare programs (e.g., meal service)	<i>M</i>	4.04	4.25	4.32 ^b	4.13 ^{ab}	3.99 ^a	4.03 ^a	4.24 ^b	4.26 ^b	4.17
	<i>SD</i>	.96	.85	.76	.99	.97	.99	.83	.85	.90
	<i>F</i>	6.36*		6.34**			3.25*			
Expanding a variety of leisure programs including health promotion	<i>M</i>	4.20	4.35	4.35	4.29	4.23	4.25	4.32	4.32	4.29
	<i>SD</i>	.95	.82	.79	.91	.95	.90	.87	.84	.87
	<i>F</i>	3.28		.85			.35			
Activating volunteer activities in the community	<i>M</i>	4.02	4.08	4.11	4.01	4.02	4.08	4.05	4.04	4.06
	<i>SD</i>	.97	.94	.85	1.07	1.00	.91	1.03	.90	.95
	<i>F</i>	< 1		< 1			< 1			
Improving professional skills for center-related staffs	<i>M</i>	4.02	4.20	4.25 ^b	4.09 ^{ab}	4.00 ^{ab}	4.04	4.12	4.26	4.13
	<i>SD</i>	.92	.84	.78	.89	.96	.89	.93	.77	.87
	<i>F</i>	4.62*		3.79*			2.42			
Lowering the age of the center members	<i>M</i>	3.24	3.58	3.67 ^b	3.33 ^a	3.25 ^a	3.27 ^a	3.53 ^b	3.58 ^b	3.45
	<i>SD</i>	1.20	1.14	1.10	1.14	1.24	1.18	1.22	1.08	1.17
	<i>F</i>	9.20**		6.64**			3.15*			
Changing the name of the center	<i>M</i>	2.92	3.34	3.54 ^b	3.30 ^b	2.65 ^a	2.92 ^a	3.18 ^a	3.52 ^b	3.18
	<i>SD</i>	1.30	1.30	1.14	1.33	1.35	1.35	1.36	1.14	1.31
	<i>F</i>	9.18**		23.33***			8.21***			

Note. Superscripts a & b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 $p < .05$, ** $p < .01$, *** $p < .001$

$SD=.92$),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M=4.02$, $SD=.97$),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M=3.95$, $SD=.95$) 등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여성도 유사하게 건강증진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M=4.35$, $SD=.82$),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M=4.25$, $SD=.85$), 운영책임자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M=4.20$, $SD=.84$),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M=4.13$, $SD=.91$), 그리고 경로당의 개방성($M=4.10$, $SD=.89$) 등을 꼽았다.

또 나이에 따른 문항별 평균의 순위를 살펴보면, 75세 이상은 건강증진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M=4.23$, $SD=.95$),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M=4.02$, $SD=1.00$), 운영책임자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M=4.00$, $SD=.96$),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M=3.99$, $SD=.97$),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M=3.92$, $SD=1.01$) 등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이어서 70-74세는 건강증진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M=4.29$, $SD=.91$),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M=4.13$, $SD=.99$), 운영책임자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M=4.09$, $SD=.89$),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M=4.01$, $SD=.89$), 그리고 경로당의 생산적 활동 장소로의 변화($M=3.98$, $SD=.97$) 등을 꼽았다. 또 69세 이하는 건강증진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M=4.35$, $SD=.79$),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M=4.32$, $SD=.76$), 운영책임자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M=4.25$, $SD=.78$),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M=4.21$, $SD=.82$),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M=4.11$, $SD=.85$) 및 경로

당의 생산적 활동 장소로의 변화($M=4.11$, $SD=.90$) 등을 꼽았다.

한편 학력에 따른 문항별 평균의 순위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에서는 건강증진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M=4.25$, $SD=.90$),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M=4.08$, $SD=.91$), 운영책임자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M=4.04$, $SD=.89$),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M=4.03$, $SD=.99$),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M=3.94$, $SD=.91$) 등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이어서 고졸은 건강증진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M=4.32$, $SD=.87$),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M=4.24$, $SD=.83$),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M=4.12$, $SD=.91$), 운영책임자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M=4.12$, $SD=.93$), 그리고 경로당의 개방성($M=3.99$, $SD=.97$) 등을 꼽았다. 또 대졸 이상은 건강증진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M=4.32$, $SD=.84$),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M=4.24$, $SD=.83$), 운영책임자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M=4.26$, $SD=.77$) 및 식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M=4.26$, $SD=.85$), 그리고 경로당의 생산적 활동 장소로의 변화($M=4.13$, $SD=.88$) 등을 꼽았다.

IV. 논의

노년기의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 그리고 사회참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경로당은 노

인여가복지 서비스 시설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Chung et al., 2020; K. Lee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가지 않는 이유나 방문하고 싶은 경로당이 되기 위한 필요사항 등을 질문한 후 성별, 나이 및 학력에 따라 답변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았던 고령자들이 경로당 방문이 어려울 정도로 바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과 중 무엇을 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답변을 살펴보면, 성별이나 나이,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취미활동이나 운동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응답자의 일부는 이웃이나 친구와의 만남이라고 답했다(Y. Lee, Kim, Hwang, Lim, Joo, Namgoong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취미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경로당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학력이 낮고 나이가 더 많은 남성 응답자 일부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에게 여가 기회 제공, 사회적 관계 증진 등 동년배 노인들과 소통, 교류, 참여의 장소로 공공적 역할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보인다. 또 학력이 높고 나이가 비교적 젊은

응답자들의 일부는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로당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경로당에 가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상당수의 응답자는 경로당을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낮은 노인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가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2020년 기준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약 75%가 75세 이상 고령자라서 경로당을 건강이나 활동성이 비교적 낮은 자들이나 찾는 장소로 인식될 수 있다(S. Chung et al., 2020). 또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텃세 등과 같은 폐쇄성이 강해서, 또는 생산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답변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답변은 주로 학력이 높거나 비교적 젊은 노인들에게서 나타난 경로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미한다(Cho, 2018; K. Lee & Lee, 2011).

이어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에서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취미나 여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답변으로 성별이나 나이 또는 학력과 관계없이 대다수가 걷기나 체조와 같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년기의 주요 관심 사항이 건강임을 나타낸 것이다(J. Kim & Lee, 2019). 또 일부는 노래 교실이나 정보화 교육, 탁구, 관광, 헬스 등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요구에 따라 경로당에서도 다양한 여가나 취미 프로그램의 진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C.

Kim et al., 2016).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싶은 경로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질문하였는데, 성별이나 나이, 학력에 상관없이 모두 여가 프로그램, 식사 서비스를 비롯한 복지프로그램의 확대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응답자 일부는 운영책임자의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등의 필요성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대상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GGWF, 2011), 경로당에 나가지 않는 노인들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점심 식사 제공 등을 중요시하고 있어 경로당의 실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로당 명칭 변경은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의 전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로당의 필요 사항이더라도 응답자들이 형식보다는 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몇 가지 시사점을 논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때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로서 편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전체 노인 집단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은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거나, 홀로 살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경로당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가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자는 비교적 심신의 건강이 양호하고 외부 활동도 자유로운 상태의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안일이 바빠서 외부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자들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조사에만 의존했다는 점이다. 만약 인터뷰 등의 질적 자료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결과 해석이 더 풍부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성별, 나이 그리고 학력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경로당 기능 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실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 노년층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로당이 되는 것이다. 근래 활동성과 경제력을 갖춘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유입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동안 경로당은 학력이나 경제력,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그리고 배타적이거나 폐쇄성 짙은 장소로 인식되어 외면받기도 했다(Cho, 2018). 이에 신 노년층이 가고 싶은 경로당이 되기 위해서는 경로당 기능이 건강증진, 여가 활동, 봉사활동, 소득 창출, 상담과 재활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 노년층 등 신규 이용자에 대해 배타적인 경로당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운영책임자 전문성 강

화·회원 교육 등이 필요하며(GGWF, 2011), 더불어 다각적인 친구세대 간의 접촉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로당의 건강증진 및 여가 프로그램 확대이다. 경로당은 규모에 비해 진행되는 여가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경로당의 경우는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위한 체조나 댄스, 웃음 치료, 안마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는 하지만, 소규모 경로당의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2020년 기준 경로당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연간 평균 35회가량 진행되었지만, 프로그램이 연간 1회도 제공되지 않는 경로당이 28%에 달했다(S. Chung et al., 2020).

셋째, 식사 서비스 등 경로당의 복지증진 프로그램 확대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대상의 점심 식사 제공, 무더위·추위 쉼터, 치매 예방지원, 학대 신고지원, 생활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J. Kim & Lee, 2019). 특히 식사 서비스는 경로당 이용이유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OHW, 2020). 이는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서·심리적 차원에서 동년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한 끼를 해결하는 점심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경로당 회원이 시도할 수 있는 봉사활동 확대이다. 지금은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경로당 주변 또는 동네 청소 등에 머물러 있는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

든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시도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네 공원 지킴이 또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건널목 교통안내, 동네 공터 꽃밭 가꾸기 등의 봉사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활동은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보람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C. Kim, Park, Jeon, Park, & Lee, 2016).

다섯째, 경로당이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세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즉,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C. Kim et al., 2016). 예를 들면,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서예 프로그램이나 텃밭 가꾸기 또는 건강 체조 프로그램 등은 노소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은 노인들의 관점을 통하여 방문하고 싶은 경로당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사항 등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에서 경로당 이용이나 운영 실태를 토대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더 원활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경로당의 특색에 맞는 모델도 추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 소재한 지역이 어디인지 또는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Cho, J. (2018). Building up functions of senior community centers: From infrastructure expansion to content expans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7 (2), 125-132.
- Chung, S., Ahn, J., Chung, S., Lee, A., & Kim, M. (2020).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lans of the senior centers* (Research report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gistration Number 11-1352000-002939-01). Sejong,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GGWF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011).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senior citizen center in Gyeonggi-do* (경기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GGWF Research Report Number 2019-09). Suwon, Korea: The Author.
- Jin, J., You, Y., (2021). Understanding th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older people on using and operating senior centers and participating leisure programs of senior centers and suggesting development plans for senior centers - Focused on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Research of Case Management*, 12 (1), 137-164.
- Kim, C., Park, C., Jeon, Y., Park, H., & Lee, C. (2016). *A study on successful model of social engagement and activities for older adults in Gyeonggi-do* (경기도 노인 사회참여 활동 성공모델 연구; GGWF Research Report Number 2016-11). Suwon, Korea: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Kim, C., Yi, H., & Lee, C. (2016). *A study of developing programs for senior citizen halls that make older adults to participate in*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개발연구; GGWF Report, 2016-05). Suwon, Korea: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Kim, J., & Lee, M. (2019). *A study on functional improvement and operation vitalization of senior citizen halls in Busan* (부산광역시 경로당 기능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BSWDI Research Report Number 2019-09). Busan, Korea: Busan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 Kim, J., & Yang, D. (2021). *A study on functional reinforcement of senior citizen halls in Seoul* (서울시 경로당 기능 강화 방안 연구; Research Report Number 2021-22). Seoul: Seoul Welfare Foundation.
- Ko, S., & Lee, S. (2016). *Operational status and vitalization plan of senior citizen halls in Jeju region* (제주지역 경로

- 당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Policy Research 2011-03). Jeju, Korea: Jeju Development Institute.
-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1). *Current status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N_B00003&vw_cd=MT_ZTITLE&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214732282&markType=S&itmNm=%EC%A0%84%EA%B5%AD.
- Lee, K., & Lee, H. (2011). A case study on the plans for management activation of the senior citizen hal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4, 165-192.
- Lee, S., & Heo, Y. (2020). *2020 Survey of older adults in Seoul*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Seoul Welfare Foundation Research Report Number-2020-54). Seoul: Seoul Welfare Foundation.
- Lee, T., Kim, J., Song, G., Lim, S., & Nam E. (2019).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use of Gyungrodang in rural area for community care: Focused on gyungrodang in Heungeop-myeon, Wonju-si, Gangwon-do.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5 (4), 7-15.
- Lee, Y., Kim, S., Hwang, N., Lim, J., Joo, B., Namgoong, E., et al. (2020). *2020 Survey of older adults*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Research report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gistration Number 11-1352000-000672-12). Sejong,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OHW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1). *2021 Health and welfare project information for the older adults* (2021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I; Publication Registration Number 11-1352000-002789-10). Sejong, Korea: The Author.
- Seoul Metropolitan City (2021). *Support plan for operating senior citizen hall in 2021* (2021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Document number 1646, Document issued at February 1, 2021). Seoul: The Author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You, B., Park, B., & Shin D. (202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upport personnel for Senior Citizens in Gyeonggi-do: Focusing on itinerant program managers* (경기도 경로당 지원인력 특성 분석 연구: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심으로; GGWF Report, 2021-06). Suwon, Korea: Gyeonggi Welfare Foundation.

Received: June 13, 2023

Revised (first form): July 12, 2023

Revised (final form): July 18, 2023

Accepted: July 21, 2023